

국힘 '한동훈 지도부' 퇴장...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한 "탄핵 찬성 후회하지 않는다"...당 대표 146일만에 사퇴 탄핵심판·조기대선 가능성에 당내 중진 비대위원장 물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 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사퇴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브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며 "그날 밤 저는 그런 일을 막지 못했기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번 비대위는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탄핵 정국에서 출범하는 이번 비대위의 성격 및 인선 등이다. 대개 비대위는 조속한 차기 지도부 선출에 집중하는 과도기 성격의 '관리형 비대위'와 당 체질 개선까지 도모하는 '혁신형 비대위' 등으로 성격을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난 7·23 전대까지 두 달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황우여 비대위', 후자는 2020년 6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당명을 비롯해 당헌 및 정강·정책까지 개정한 '김종인 비대위'가 가까운 사례로 꼽힌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지만,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기간을 꽤 채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현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이르면 내년 봄 '벗꽃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시국에서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당권도 사실상 대선 후보로 옮겨간다. 당 대선 후보는 당무 전반에 대해 모든 우선 권한을 갖도록 당헌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자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굳이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부에 마땅한 중진이 누가 있을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탄핵 가결 책임론 공방...친윤-친한 갈등 격화

"韓 축출 카드" vs "찬성과 징계" 일각 "편 가르기 할 때 아냐" '계엄사태' 후 당원 7천명 탈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 총 사퇴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 필요성까지 주장했고,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는 탄핵안 가결을 빌미로 '한동훈 끌어내리기'를 기획했던 것 아니냐고 맞서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친한계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한 것을 두고 "한동훈 대표를 축출하기 위한 카드"라며 "모든 책임을 한동훈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부총장은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당에서 제시한 '자진 하야 로드맵'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탄핵 심판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했다"며 "그럼 당에서는 헌법 46조에 나온 것처럼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하자고 하고, 당론을 '자율 투표'로 정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중혁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친윤계를 겨냥해 "결과적으로 그걸(탄핵안 가결) 계기로 해서 본인들이 한 대표를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유명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퇴한 한 전 대표를 향해 "결국 숨길 수 없었던 그 가벼움이 자신도 망치고, 당도 힘들게 하고, 나라도 어렵게 했다"며 "그에게는 정치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비례대표·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자 여권에서는 내부 분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출 수 없듯이, 찬탄(탄핵 찬성) 의원들 역시 우리 가슴에서 지출 수 없는 동지들"이라고 적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은 편 가르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탄핵안에 찬성했다면 반대했다, 이를 두고 부역자나 출당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어지러운 시국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지금 분열하면 우리 당은 끝장"이라며 "이대로 가다 가는 당이 정말 탄핵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지난 4~15일 탈당한 국민의힘 당원은 총 77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은 6074명에 달했다. 계엄 선포 전 하루 평균 약 100명대였던 탈당자 수는 계엄 사태 후 약 645명으로 급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권성동 내일 상견례...탄핵후 첫 만남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됐기에 상대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인사하는 것이 국회 관행"이라며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면서 기존의 원내대표직과 함께 당 대표 역할을 맡게 됐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권 권한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 및 경찰청장의 조속한 임명을 위해 양당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만남은 회동이나 회담이 아닌 '예방'으로 봐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권 권한대행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도 18일 오전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힘 "이재명 재판부,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

항소심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는 탄원서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

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자문위는 또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페널티가 있어야 법을 규정대로 3개월 내 재판 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계열	모집 단 위		모집 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로33길 36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